

인지적 주목과 감각질^{*†}

김 효 은[‡]

본 논문의 목표는 현상적 경험에 대한 두 설명 중 하나의 설명을 옹호하고 감각질이 인지적 차원의 주목(attention)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넛의 사고실험에 대한 두 설명인 오웰 모델과 스탈린 모델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인지심리학에서의 최근의 실험에 대한 두 경쟁적 해석을 비교한다. 필자는 서로 대치되는 두 모델의 개념적, 경험적 자료들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통해 스탈린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인지적 주목(attention)이 현상적 의식을 해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됨을 주장한다. 예컨대 동일한 자극입력을 가지지만 개인마다 다른 통증 감각질을 가짐이 인지적 주목의 기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설명의 이점은 감각질 같은 현상적 심적 상태가 물리적 상태만큼 세밀하게 개별화될 수 있고 인지적 차원의 주목의 기제가 가능한 유기체에만 감각질을 제한함으로써 범심론을 배제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주요어】 데넛, 오웰/스탈린 모델, 변화맹, 부주의맹, 표상이론, 주목, 감각질, 통증

1. 머리말

우리는 주변을 둘러 볼 때 우리 앞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적은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주목¹⁾하는

* 접수 완료 : 2007. 4. 16 / 심사 및 수정 완료 : 2007. 6. 12.

† 이 글은 2006년 과학철학회에서 발표한 ‘축소된 표상주의의 가능성과 감각질’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 초고에 대한 백도형 선생님의 논평과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제기, 그리고 특히 익명의 심사위원들께서 주신 자세하고 예리한 조언이 초고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경향이 있다. 또,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비록 우리가 우리 시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부 사항들에 일일이 주목할 수는 없을지라도 시야 안에 있는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하여 경험하고 있다는 감각 또한 가진다. 이 두 가지의 다소 상반되는 듯한 견해들은 다음의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각하지 않는 대상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혹은 그 대상들이 우리의 시각 경험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는 현상적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 경험에 대하여 자극 정보의 상당한 양을 자각할 수 있는 꽤 구조화된 것으로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경험의 내용은 곧 지각 대상의 속성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차적 표상주의 입장을 표명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타이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 ‘기억’이나 개념의 유한성이 경험의 풍부함을 다 감당해내지 못할 뿐 경험의 현상적 특성은 지향적 내용과 동일하며, 경험 내용은 풍부하다(Tye 2000, 11-12). 이 생각은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견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은 의식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암스트롱이 제시한 숙련된 운전자의 예는 지각경험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예이다. 숙련된 운전자의 예가 현상적 의식과 관련하여 심리철학에서 논의되어왔던 맥락은 예컨대 숙련된 운전자가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 운전 중 자신의 앞에 놓인 시각적 광경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운전자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그 운전자는 수십 년 동안 같은 길을 운전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도로의 상태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곳을 주목하지 않고서도 다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을 능란하게 해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표상주의의 한 설명의 옹호자인 타이와 드레츠키는 그 운전자가 주의를

1) ‘주의’(attention)는 -ism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주목’과 ‘주의’를 적절한 문맥에 따라 상호 교환 가능하게 사용한다. 이는 익명의 한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감사드린다.

기울이지 않는 대상들에 대한 시각적인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가진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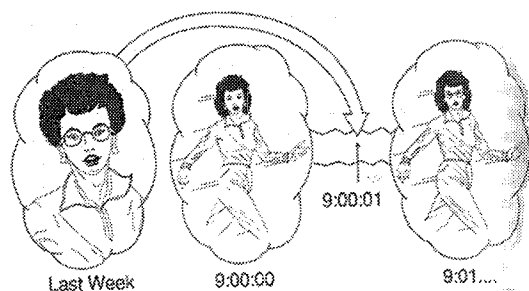
필자는 이 숙련된 운전자의 예가 적절하게 설정된 것인지 의심한다. 한적한 고속도로와 같이 주의가 덜 요구되는 장소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그 설명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숙련된 운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도 안전운전을 하리라는 가정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숙련된 운전자의 예는 그 설명이 성립되는 사례를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어떤 생각에 몰두하느라고 마음이 운전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졌다는 사실이 내가 더 이상 도로와 차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Tye 2000, 14)는 설명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각되지 않은 지각 대상의 특성들이 어떻게 나의 시각적 경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자는 먼저 지각 경험에 대한 데넛의 사고실험을 통해 현상적 경험에 관한 두 설명 모델-오웰 모델과 스탈린 모델-을 살펴본다(2절).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인지심리학의 일련의 실험과 그에 대한 두 경쟁적 해석, 그리고 경험적 자료를 비교, 검토(3절)함으로써 데넛의 두 설명 모델 중 스탈린 모델이 더 큰 설명력을 가짐을 보여준다(4절)고 주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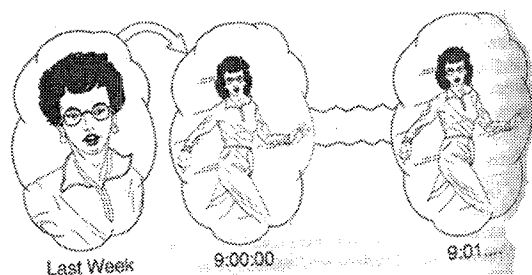
2. 지각 경험의 두 모델: 오웰과 스탈린

현상적 경험에 관한 설명, 구체적으로는 자각되지 않은 지각 대상의 특성들이 어떻게 나의 시각적 경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대니얼 데넛(Dennett, D. 1991)이 현상적 의식의 실재성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때 제시한 의식에 대한 시간적 변칙(temporal anomaly) 사고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데넛의 사고실험과 그에 대한 두 설명 모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길모퉁이에 서있고 긴 머리의 여성이 달려 지나간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방금 본 여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일 분 후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여성을 본 약 일초 후에, 어떤 다른 짧은 머리에 안경을 착용한 여성의 기억이 당신이 방금 보았던 여성에 대한 기억을 오염시켜서, 당신은 그 여성의 안경을 보았다고 진지하게, 그러나 잘못 보고한다. ... 당신의 원래 시각적 경험은 안경을 착용한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마치 당신이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의 안경을 보았었던 것처럼 보인다. (Dennett 1991, 117-8)²⁾



오웰 모델



스탈린 모델(Dennett 1991, 118)

- 2) 데넛은 이 사고실험을 데카르트적 통해 유물론을 논박하고 감각질 비실재론을 주장하면서 그의 복수초안모델을 제안한다. 필자는 이 사고실험의 두 설명방식을 대조하여 그 중 하나를 의식에 대한 한 설명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데넛은 후에 자신의 이 사고실험이 3절에서 논의될 인지심리학의 변화맹(change blindness) 실험을 거의 예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예에서 실제의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가짜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상태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잘못된 정보가 긴 머리 여성을 본 이후에 추가되었거나(오웰 모델), 그 이전에 이미 추가되어 있거나(스탈린 모델)이다. 전자의 오웰 모델에서는 긴 머리 여성에 대한 이전 경험은 궁극적으로는 자각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시각적 경험의 내용으로 들어온다. 후자의 스탈린 모델에서는 의식적 경험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이미 안경의 기억에 의해 물들여졌기 때문에 안경을 끼지 않는 긴 머리 여성에 대한 어떤 경험 내용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³⁾

이 두 모델의 차이는 우리의 현상적 경험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해주는가? 데넷은 두 모델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일인칭적, 삼인칭적 방법도 없다(Dennett 1991, 124-5)고 함으로써 현상적 경험에 대한 비실재론적 입장을 취한다. 즉 두 모델 간의 차이는 의식에 대한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넷의 평가처럼 두 모델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가짜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같다면, 어떻게 가짜경험을 가지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두 모델 간의 차이가 어떻게 가짜경험을 가지게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차이가 아니다. 두 모델은 자각되지 않은 경험의 지위에 관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상적 경험의 본성에 대한 하나의 성찰을 제공해준다. 두 모델 간의 차이는 자각되지 않은 경험이 존재(오웰 모델) 하는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가(스탈린 모델)이다. 자각되지 않은 경험의 존재를 가정하는 오웰 모델은 서두에서 제시한 표상 이론의 설명을 반영한다. 즉, 자각되지 않은 경험이 존재한다는 오웰 모델의 가정은 표상 이론의 한 버전을 옹호하는 타이의 주장처럼 우리의 개념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감각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현상적 경험은 풍부하

3) 이 두 설명은 다음 절에서 제시될 심리학 실험에 대한 두 해석들과 각기 정확히 대응한다.

다(Tye 2000, 11).⁴⁾ 반면, 자각되지 않은 경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스탈린 모델의 가정은 우리의 인지적 개념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지각 대상의 속성은 아예 현상적 경험 내용으로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오웰 모델에서 이야기되는 만큼 현상적 경험 내용은 풍부하지 않다.

두 모델들 중 어느 모델이 우리의 현상적 경험을 더 잘 설명하는가? 오웰 모델이 우리의 현상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들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자각되지 않는 지각대상의 속성에 대해 여전히 지각경험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제시했던 장거리 운전자의 예를 다시 빌자면, 장거리 운전자는 고속도로의 구체적 상황을 자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대상을 경험한다고 설명된다.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일차적 표상이론의 설명이다. 필자는 이러한 오웰 모델의 설명이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어불성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필자는 데넷의 철학적 사고실험의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의 최근의 일련의 실험들을 살펴본다. 필자는 이 실험에 대한 두 경쟁적 해석이 데넷이 제시한 오웰 모델과 스탈린 모델에 상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해석들을 지지하는 경험적 자료를 철학적인 개념적 정합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

4) 익명의 한 심사위원은 오웰 모델을 타이의 표상이론과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제기하셨다. 타이의 표상이론이 가정하는 투명성 논제가 필자가 제시하는 오웰 모델과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지적하신 것처럼 투명성 논제는 본래 감각자료이론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제시(Tye 2000, 45-51)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타이의 투명성 논제에서 보이는 여러 측면들은 오웰 모델과 관련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타이는 지각 주체가 그에 대한 개념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현상적 경험의 풍부함을 언급하며, 오웰 모델에 해당하는 심리학적 해석은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주목을 하는 상황에서 자각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경험 내용을 가정한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타이의 의식이론인 PANIC이론의 ‘poised’, ‘abstract’, ‘nonconceptual’ 요소들에 대한 별도의 분석 작업을 필요로 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은 초고에서의 오웰 모델에 대한 필자의 다소 무리한 구성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하고자 한다. 필자는 두 설명 모델 중 스탈린 모델에 해당하는 해석이 더 설명력 있다고 하겠다. 이 후 스탈린 모델로부터 도출되는 인지적 ‘주목’의 요소가 구체적인 감각질의 설명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보겠다.

3. 사례연구: 인지심리학의 일련의 실험에 대한 두 해석

다음의 두 실험들은 앞서 소개된 현상적 경험의 본성에 관한 테넷의 사고실험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심리학 실험 자체가 오웰 모델이나 스탈린 모델 어느 한 설명방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심리학 내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두 해석이 존재하며, 이는 테넷의 오웰 모델과 스탈린 모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필자는 두 해석들을 각기 지지하는 경험 자료들을 검토한 후 스탈린 모델에 해당하는 해석이 우리 경험의 현상적 특질을 설명하는 데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변화맹(change blindness)

시지각에 관한 경험적, 철학적 연구들은 현상적 경험에 대한 상식적 견해에 문제를 제기한다. 열 그루의 나무가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어느 한 쪽 그림에는 한 그루가 빠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 그림들을 의식적으로 보면서도 두 그림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Dretske 1993, 125-128; 2004).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무 그림의 예에 대하여, 그러한 경우는 두 그림 사이의 차이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사소한 차이이므로 그 차이를 자각하지 못함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박이 의미가 있으려면 두 장면 간의 변화 차이가 클

경우 그것이 반드시 자각되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그 차이가 사소한 아니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그 차이가 눈에 뜨이게 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은 지속된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의 변화맹(change blindness) 실험이다. 변화맹은 두 장면들에 여러 변화를 주면서 피실험자들이 그 변화들을 알아차리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레빈과 사이먼의 변화맹 실험(Levin & Simons 1997)에서 피실험자들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시청한다. 연속되는 장면들은 각기 이전 장면과는 다른 변화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실험자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변화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운 후에 재실험을 하였을 때에도 피실험자들이 장면 간 변화를 알아차리는 확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장면에 나타나는 변화는 피실험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주변적인 대상들이므로 변화를 자각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실수일 뿐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실험자의 시야 중앙에 놓인 대상에 변화를 주는 후속 실험에서도 피실험자들은 그에 대한 변화를 자각하는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다. 게다가 시야의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화면 속 등장인물들의 옷 색깔 또한 피실험자의 약 삼분의 이가 그 변화를 탐지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변화맹이 단순히 지각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거나 비정상적인 환경에 기인하는 실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지각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변화맹 현상이 일반적인 실수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두 장면들 간의 차이는 즉각적으로, 혹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경우 자각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일차적 표상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현상적 경험의 내용은 곧 지각 대상의 속성이므로 두 장면들 간의 어떤 특성이 변화하고 그에 주목할 경우 경험의 현상적 특성 또한 변화한다(Tye 2000, 48). 따라서 지각 대상의 어떤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변화를 탐지할 수 있고 그것이 자각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

상적 경험 내용에 반영된다. 그러나 위의 변화맹 현상은 이 가정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부주의맹(Inattention blindness)

앞서 변화맹과 관련된 실험은 지각 대상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주목이 지각 경험에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소개될 부주의맹(inattention blindness)에 대한 실험은 특정 영역에 대한 주목 자체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다(Levin & Simon, 1997). 이 실험이 보여줄 측면은 일차적 표상이론이 가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각 대상의 어떤 속성에 대한 현상적 경험에 있어서 그에 대한 주의를 기울임은 단지 시야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것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이의 인지적 지위나 기대, 목표 그리고 계획 등의 인지적, 의미론적 차원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특정 대상에 물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의 지각경험이 곧바로 그 주목된 지각대상의 내용을 자각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주의맹 실험은 변화맹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부주의맹(Inattention blindness)’으로 일컬어지는 심리학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약 일 분간 지속되는 대학생들의 농구 게임 비디오를 보면서 검은 옷을 입은 팀과 하얀 옷을 입은 팀 중 어느 한 팀의 성공적인 공 패스와 성공적이지 못한 공 패스가 몇 번 이루어지는지를 세도록 지시 받는다. 즉 시야의 특정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실험이 고안된다. 이렇게 피실험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이 장면에 변화를 개입시키기 위해 실험은 갑작스레 검은 고릴라 의복을 입은 사람이 농구를 하는 이들 사이로 약 9초 동안 걸어 다니도록 한다. 이 때 팀들 사이에서 몇 번 공이 건네지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피실험자들 중 약 반 정도는 검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Simons & Chabris 1999). 즉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시야의 부분에 낯선 물체가 나타났는데도 자각하지 못하였

다. 이는 시야의 중심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대상의 특성이 자각된다는 타이틀 비롯한 표상주의자들의 가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실험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임이라는 내성 작용 자체가 대상의 자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시야의 특정 영역에 기울여진 물리적 차원의 주의 이상의 요소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 경험은 단순한 형태의 물리적인 주의 외에 어떤 요소로 설명되는가? 또 다른 종류의 실험은 지각 당사자가 변화를 경험적으로 탐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어떤 낯선 사람이 피실험자에게 길을 묻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 사이로 커다란 문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동안 피실험자 모르게 운반자들 중 한 명이 처음에 길을 묻던 사람과 자리를 바꾸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두 사람은 키와 목소리 등 용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 중 꽤 다수가 자신에게 길을 묻는 사람이 조금 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Simons & Levin, 1998).⁵⁾ 이 실험의 상황은 단순히 물리적 대상의 특정 영역에 주의를 기울임 이상의 어떤 요소가 우리의 현상적 경험을 설명하는지를 문제제기한다.

이에 대한 답은 위의 실험에 관련된 후속 실험에서 보인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묻고 있는 도중 질문자가 다른 이로 대체되는 위의 실험에서는 피실험자의 연령대가 길을 묻는 사람들의 연령대보다 많이 아래인 경우였다. 그런데, 변형된 후속 실험에서는 두 사람의 연령대를 유사하게 설정하고 피실험자가 길을 묻는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확률을 비교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피실험자가 연령대가 많이 차이가 나는 상대방이 다른 머리카락 스타일을 가진 사람으로

5) 이러한 실험들은 비디오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실험들을 볼 수 있다(http://viscog.beckman.uiuc.edu/djs_lab/demos.html). 이 실험에 대한 어느 한 해석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이론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철학자들은 데넷(1991)과 드레츠키(2004), 타이(1995; 2000), 그리고 노예(2002)가 있다.

바뀐 후에도 그 변화를 자각하지 못한 반면, 변형된 실험에서는 피실험자의 머리카락 스타일의 변화를 자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사회 집단(연령, 직업, 문화 등)에 있는 이들의 세세한 사항들에 자동적으로 더 잘 주의를 기울이게끔 우리의 경험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사회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특성들이 시각 경험의 현상적 특성으로 부호화되고 그래서 대상의 변화를 더 쉽게 의식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단순히 특정 영역과 대상 자체에 대한 주의가 아니라 개념적 부호화에 기반을 둔 인지적 차원의 주목이 우리의 의식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

위의 변화맹, 부주의맹 두 실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 경험에 대한 상식적인 가정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피실험자가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것, 즉 현상적 경험을 가지는 것은 대상에 주의가 기울여진 것에 더하여 그 대상의 변화된 속성에 대한 시각적 정보가 성공적으로 의미론적 부호화가 되었을 때뿐이다. 이러하다면, 시야에서 개념적 차원에서 자각되지 않는 대상의 속성들은 현상적 경험의 내용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차원이거나 내성 작용에 의해 지각대상의 특정 속성이 주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현상적 경험의 내용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결론은 앞서 데넷이 지각 경험에 대하여 두 가지 설명 가능성으로 제시하였던 오웰 모델과 스탈린 모델 중 스탈린 모델이 더 그럴듯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각적 요표상이 시각 메커니즘이나 망각, 혹은 비정상적인 지각환경에 기인한 우연한 실수(오웰 모델)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지각적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실험들에 관하여 데넷의 오웰 모델을 연상케 하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인지심리학/인지적 신경과학 자료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데넷의 사고실험이 오웰 모델과 스탈린 모델 양자 중 어느 한 설명을 선호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한 것처럼, 인지심리학의 위의 실험들 자체는 어느 한 쪽 가설을 직접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설명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지지

자료들을 비교하여 그 개념적 종합성과 설명력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과학이 철학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철학은 그러한 경험적 자료들에 대한 개념적 분석 작업을 통해 상호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필자는 오웰 모델과 스탈린 모델을 각기 지지하는 두 해석과 자료들을 비교하여 스탈린 모델의 설명이 오웰 모델보다 더 정합적이라고 하겠다.

‘부주의 망각’(Inattentional amnesia) 해석: 오웰 모델적 설명

변화맹과 부주의맹 실험에 대하여 필자가 지지하는 스탈린 모델적 해석은 지각적 오표상이 단순한 오류나 망각이 아닌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지각적 현상이라는 함의를 가진다. 반면, 오웰 모델적 해석은 위의 실험으로부터 “의식적 경험에 있어서 인지적 주목(attention) 없이는 의식적 지각도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비약이며, 그 실험은 지각 경험의 근본적인 한계보다는 기억이나 개념 형성 과정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위의 실험으로부터 부주의 ‘맹’(inattentional blindness)이 아니라 부주의 ‘망각’(inattentional amnesia)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더 정합적이라는 주장이다(Wolfe, 1999). 이러한 반론은 직관적으로도 옹호된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 방 창문 밖의 나무들을 바라본 후 눈을 감았을 때 나는 내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나무 근처의 가로등과 지나가는 사람들, 표지판 등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오웰 모델에 대응하는 ‘부주의 망각’ 해석의 기본 요지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장면들 대부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일단 받아들이고 처리하지만 당면한 계획이나 관심과 관련되지 않은 사소한 특징들은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 믿음 뿐 아니라 의식에 관한 일차적 표상 이론의 견해와도 부합한다. 부주의 망각 해석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대상들을 자각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주

목되는 시각 대상의 속성들이 지각자인 우리들에 의해서 일단 물리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가정한다. 그래서 스탈린 모델의 설명과는 달리 주의라는 요소는 의식적 경험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필요 없거나 정상적인 시각적 환경에서 일단 물리적으로 주의가 기울여진 대상의 특성 모두는 우리의 현상적 경험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타당한가? 이 오웰 모델적 설명인 부주의 망각 해석을 지지하려면, 즉 자각되지 않았지만 주의가 기울여졌거나 혹은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대상의 특징들이 일단 우리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든 기록되거나 저장된다는 위의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보려면, 그러한 특징들이 적어도 지각자들의 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는 일련의 실험(Mack & Rock 1998)은 한 무리의 피실험자들이 어떤 다른 작업에 주의를 집중할 동안에 화면을 가로지르는 'flake'라고 쓰여진 글자를 의식적으로는 알아차리는데 실패했지만 피실험자들 대다수가 'snow-flake'라고 쓰인 그림을 다른 그림보다 더 많은 확률로 선택하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실험으로부터, 맥과 록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는 자극이 'snow-flake'라고 쓰인 그림을 더 많이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부주의 망이 아니라 부주의 망각 해석을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대상의 속성들이 현상적 경험의 내용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스탈린 모델의 설명)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암묵적 지각이 존재하지만 의식적 기억의 상태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오웰 모델)라는 것이다.

더 확실하게 오웰 모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증거 자료는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피실험자가 그 대상을 자각하기 전에 이미 눈동자의 움직임을 야기한다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어떤 시각적 자극들이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분류하기 이전에 이미 물리적으로 수용이 된다는 증거(Rensink 2004)가 된다. 렌싱크의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이 변화맹 실험에서 변화를 실제로 자각하기 전에 이미 그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

다고 보고한다. 이는 변화를 탐지하는 비감각적인 메커니즘이 있으며 시각적 표상은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대상의 특징도 일단 보유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Rensink 2000, 2004). 이 자료들은 일견 오웰 모델을 지지하는 매우 직접적인 경험 자료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실험자들의 보고는 피실험자의 내성에 의존하는 일인칭적 자료로서 주관적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실험이 행해질 때 추가적으로 피실험자의 뇌의 특정 영역의 혈류 움직임을 보여주는 뇌 자기공명 영상(fMRI) 자료는 삼인칭적 자료로서 그러한 어려움을 상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리스 등(Rees et al. 1999)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때 함께 제시되었으나 의식적인 자각에 나타나지 않았던 문자 정보가 피실험자의 시각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 표상되었음을 보여주는 뇌 자기공명 영상 자료를 제시한다. 이렇게 심리학 적 자료 뿐만 아니라 인지 신경과학 자료까지 제시된다면 부주의 망각 해석과 오웰모델은 꽤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 것처럼 보인다.⁶⁾ 또, 데넷의 오웰 모델은 직관적, 상식적 근거 뿐 아니라 일인칭적, 삼인칭적 연구 자료 모두에 의해 지지되는 강력한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오웰 모델이 우리의 현상적 경험에 대한 더 우세한 설명방식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오웰 모델의 설명적 비정합성

어떤 하나의 가설이 경험적으로 부합한다는 사실이 곧 그 가설이 좋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함축하는가? 인지 심리학 내의 논의에

6) 오웰 모델을 지지하는 자료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의식 작용에 대한 뇌 영상기법과 같은 최근의 의식 연구방법에 대하여 필자를 포함하여 그 방법론을 개발한 과학자들 당사자들조차 다소 회의적이다. 영상기법은 뇌의 상태와 심적 상태의 상관관계만 보여줄 뿐 과학적 일반화를 할 법칙적 관계는 보여주지 못한다(Huettel et al. 2004). 즉, 어떤 경험 자료는 특정한 한 가설을 입증하기에 결정적이지 않다.

국한한다면 여러 실험 자료들에 근거하여 설명력을 가늠하므로 그렇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자료에 대한 철학적 분석은 그러한 자료들이 사용하는 개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므로 심리학 내의 논의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부주의 망각 해석/오웰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위의 경험적 자료들이 상식과 과학적 증거에 부합하고 일견 강력해보이더라도 변화맹이나 부주의맹 해석보다 부주의 망각 해석을 선호하기에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의 부주의 망각 해석/오웰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던 자료는 또한 부주의맹/스탈린 모델 또한 동등한 정도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그러한지를 보자. 위에서 부주의 망각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한 실험에서, 변화를 자각하기 전에 이미 변화가 탐지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때 변화를 의식적으로 자각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지체(delay)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그 변화가 무의식적으로 경험된다는 증거로서 제시되었었다. 그런데, 그 시간 지체는 그러한 해석 말고도 정반대의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즉, 변화가 이미 의식적으로 자각되었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두 해석 중 어느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이를 보기 위해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제시된 글자('snowflake')와 관련된 실험은 일견 부주의 망각 견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한 가지 불분명한 점은 'snow-flake'라고 쓰인 그림을 더 많이 선택했을 때 피실험자가 바로 그 시각적 입력에 대하여 제대로 표상을 했는지 오표상을 했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오표상일 경우 부주의 망각 해석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표상의 한 경우는 피실험자가 시야에 어떤 변화가 없는데도 변화를 탐지하였다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이 자료는 변화 탐지의 경우와 변화가 없는데도 잘못 보고하는 경우 모두 뇌 영상에 나타나는 발화 영역이 동일(Pessoa et al., 2004)한 경우를 보여주었다. 이는 스탈린 모델을 지지해주는 자료이며, 앞서 부주의 망

각/오웰 모델을 지지하는 자료로서 제시되었던 리즈 등의 뇌영상 자료가 결정적 증거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Simons et al., 2005). 변화 탐지에 대한 오폭상과 올바른 표상의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뇌 활동의 변화로 설명되는 위의 뇌 혈류 변화와 관련된 삼인칭 자료는 우리의 현상적 경험의 내용이 지각 대상의 특성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해주지 못한다.

둘째, 보다 상식적이라고 간주되는 부주의 망각 해석/오웰 모델이 가정하는 ‘망각’의 개념이 그 해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일상적인 사례들과 상충함을 알 수 있다. 부주의 망각 해석은 한 장면의 어떤 변화가 왜 자각되지 않고 간과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부주의 망각 해석을 지지하는 일군의 인지심리학자들은 ‘망각’이라는 개념을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망각됨’(amnesia)과 ‘아예 경험되지 않음’(blindness)은 각기 오웰 모델과 스탈린 모델이라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두 상태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화 탐지의 경우와 변화가 없는데도 잘못 보고하는 경우 모두 뇌 영상에 나타나는 발화 영역이 동일하였다는 자료는 부주의 망각 해석이 이 두 상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망각’하였다는 것은 ‘보았지만 잊었다’는 상태인데, 이 인식적 상태가 과연 전혀 보지 못했음과 실제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셋째, 앞서 부주의맹 현상과 관련된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자각하지 못함에 관한 실험을 다시 떠올려보자. 검은 고릴라 복장의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동안 지나쳐 간 것이 아니라 기억되기 충분한 9초간이나 시야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은 자각하지 못하였다. 만약 오웰 모델을 지지하는 ‘보았지만 잊었음’이라는 부주의 망각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억에 남아 지각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인 9초 동안 어떻게 자각되지도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잊었음’이라는 개념은 해당하는 정보를 믿게 되고 일단 그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부주의 망각 해석은 어떻게 고릴라 복장의 사람에 대한 시각 정보가 저장되는지, 그리고 그

것이 잊힌 다음 나중에 회상조차 못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주의맹 해석이 주장하는 ‘보았지만 잊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9초간 자각되지 않은 고릴라 복장의 사람은 애초에 우리의 경험 내용에 포섭되지 않았다는 스탈린 모델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지적 차원에서 범주화되는 주목에 의해 파악되는 특성이 우리 현상적 경험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앞에 있는 지각 대상의 특성이 우리의 현상적 경험 안에서 기억되었다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험 내용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데넷의 스탈린 모델에 대응하는 부주의맹 해석이 우리의 현상적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적절한 설명일 수 있는가?

4. 스탈린 모델과 감각질

데넷의 지각경험의 두 모델 중 스탈린 모델은 인지적 주목이 현상적 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 데 개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탈린 모델로부터 도출되는 인지적 차원의 주목의 요소는 의식적 자각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시각적 자극을 분별하는 맹시(blindsight) 현상의 어떤 측면을 설명할 수 있으며, 동일한 외부 자극 정보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다른 통증감각의 정도를 보이는 감각질의 개별성을 해명하는 데에도 설명력을 가진다. 다음에서 이를 자세히 보고 결론적으로 스탈린 모델이 오웰 모델보다 감각질의 설명에 더 큰 이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인지적 주목과 맹시(blindsight) 현상

사실상, 의식이론을 개진하는 여러 철학자들도 주목(attention)이 의식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을 대상 자체에 관한 물리적, 고차적(higher-order) 차원에서의 주목으로 생각하거나, 현상적 의식을 일으키는데 우연적인 요소로만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고차적 사고가 현상적 의식을 조명한다고 주장하는 로젠탈은 고차적 사고의 내용은 우리의 주목의 초점이 되는 심적 상태일 수 있다(Rosenthal 1986, 43)고 한다. 그렇지만, 주목의 초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시야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위치하여 있다면 그 경우는 현상적 의식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 나아가, 표상주의의 옹호자인 타이는 대상의 내용에 굳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도 시각적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며, 그래도 시각적 감각에 대하여는 주목할 수 있다(Tye 2003, 13-14)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3절의 인지심리학 실험에서 끌어낸 주목의 요소는 인지적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으로 로젠탈이나 타이가 이야기하는 주목과는 다르다.⁷⁾

3절에서 부주의맹과 변화맹 현상을 둘러싼 논의에서 본 것처럼, 시야의 주변부가 아닌 시야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는 대상조차도 그에 주의를 기울여지지 못하면 그 대상의 속성은 경험 내용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는 시각 대상이 시야의 중심부에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현상적 경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음에서 소개될 맹시(blindsight)를 가지는 사람에게 행해진 실험은 시

7) 익명의 한 심사위원은 주목의 요소가 타이의 일차적 표상이론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다만, 현상적 경험의 해명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인지적/개념적 주의는 의식함을 주의를 기울임으로 해석하는 암스트롱의 ‘내성작용(introspection)’이나 타이가 이야기하는 지각 대상의 특정 영역에 대한 주의와는 다르다. 암스트롱의 ‘단일 탐지(single monitoring mechanism)’ 모델에 따르면, 다양한 유기체와 인공 체계들은 감각 수용기(sensor receptor)나 탐지기(scanner)와 같은 중심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저장, 사용한다. 이러한 생각은 동물들 뿐 아니라 로봇이나 온도조절기 등에도 그러한 심적 상태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물리적 차원의 주의와 관련된 의식이론들은 범심론을 함의할 가능성을 보이는 반면,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인지적 차원의 주목은 그러한 차원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유기체에만 감각질을 제한하여 적용하게 한다.

각대상이 피실험자의 시야의 중앙에 있지 않은데도 인지적 ‘주목’의 요소가 어떤 것을 자각하는 것을 돕게 되는 예를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눈의 왼쪽에만 맹점을 가지기 때문에 왼쪽 영역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가질 수 없는(blindsight) 사람의 시야에 역기(barbell) 모양의 물체가 제시된다. 이 물체의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기 위하여 오른쪽에는 O를, 왼쪽에는 X를 표시하여 놓았다고 한다. 왼쪽에 맹점을 가지는 피실험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맹점 영역이 아닌 영역, 즉 시야의 중심영역에 위치한 O표시만을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역기 모양의 물체를 회전하여서 그가 보지 못하는 맹점 영역인 왼쪽으로 O표시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 X자가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오른쪽 영역으로 바뀌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O자일 뿐이라고 보고하였다(Styles 1997). 이러한 현상은 O에 처음에 주의를 기울임이 신경생리학적으로 두뇌 안에서 개념적으로 부호화(coded)되고, 그럼으로써 주의의 기제가 계속적으로 그 맹시자로 하여금 O에 대한 현상적 경험을 가지게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된 부주의맹과 변화맹 실험에서의 인지적 주목의 기능과 일관적이다. 두 장면의 어떤 변화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피실험자들은 일단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자각한 후에는-즉, 문제가 되는 그 변화의 대상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부호화가 되고 그것에 대한 주의의 기제가 활성화되면-아무리 복잡한 인파나 그림 속에서도 그 대상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에서의 ‘카테일 파티 효과’라는 현상에서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나는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과의 대화에 몰두해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웅성거리고 있기 때문에 내 귀에는 내가 속한 무리들의 대화만 가까스로 들린다. 그런데, 멀리 어디선가 나의 이름을 거론하는 소리만은 나에게 현상적으로 부각된다. 즉, 나와 관련되는 대상이나 주제는 나의 두뇌 안에 이미 활성화되어 주목의 기제로 사용되고 감각정보가 현상적으로 경험되게끔 돕는다는 것

이다. 현상적 경험의 해명에 기여하는 이러한 스탈린적 모델의 설명은 통증 감각질의 해명에 보다 두드러지게 기여하며 다음에서 이를 보겠다.

인지적 주목과 통증 감각질

지각 경험에 관한 데넷의 두 모델 중 스탈린 모델이 더 우월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로부터 도출된 주목의 요소가 감각질의 해명에 있어서 타이나 드레츠키의 표상 이론의 설명과는 차별적인 설명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목과 관련된 다음의 두 측면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과 관련된 첫 번째 측면은 감각 경험의 현상적 측면이 그 감각을 발생시키는 자극 속성 만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축구경기에서 큰 상처를 입은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환경이나 상황이 개인이 가지는 주의의 기제를 조절하게끔 만들어 통증 감각질의 현상적 질적 측면의 정도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 19세기 말 아프리카를 탐험한 리빙스턴 박사는 사자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는데 어깨가 뜯겨 나가는 순간에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두 번째 측면은 주목의 요소가 외부 환경과 같은 관계적 특성에 의해서 환원적으로 결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감각질의 질적 양적 크기와 모양새는 그 사람이 간여해 온 문화적, 교육적 환경과 개인사 등에 의해 형성된 지각 패턴에 의해서 주목의 기제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앞에서 변화맹(change blindness) 실험을 검토할 때, 피실험자가 속한 교육 집단이나, 연령 군에 따라서 시야에 포착된 대상에 대한 경험적 자각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결과와 일관된다.⁸⁾

8) 이러한 측면은 감각질의 본래성이나 혹은 드레츠키나 타이가 제시하는 지향적 내용 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주목의 기제와 관련된 이러한 측면들은 의지를 강하게 해 통증을 참아내는 등의 마음의 하향적(top-down) 인과를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 있다.

주목의 기제에 작용하는 상술한 두 측면들은 각기 통증 감각이라는 현상적 경험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두 측면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첫 번째 측면에서 이야기된 여러 상황들은 아마도 두 번째 측면을 장기적으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두 번째의 체화된 측면은 첫 번째에서의 상황적 요소들에 반응하는 감각질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증의 관문이론(Gate control theory of pain)⁹⁾에 따르면 극단적인 자극이 전해질 경우 이전의 통증자극과 관련된 문이 닫힘으로써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통증을 금지하는 메커니즘의 작동은 앞서 제시하였던 주목의 두 가지 측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우리가 적과 싸우는 상황에서는 적과의 싸움에 주목하는 것이 상처로부터 오는 통증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해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 소위 자학증(masochism)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오웰 모델의 설명에 따르면, 자학가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스스로를 손상하여 생기는 신체의 상처의 속성으로부터 야기되는 통증을 참음으로서 만들어낸 즐거움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스탈린 모델의 설명에 따르면 통증 정보를 주목의 기제를 통해 처음부터 금지시킴으로써 가능한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자학가들은 통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주목의 기제를 사용하여 통증 메커니즘을 조절함으로써 통증의 현상적 느낌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5. 맺는말

다시 이 논문의 서두에서 제기된 데넷의 두 모델로 돌아가 보자.

9) 멜젝과 월(Melzack, R, Wall, P. 1965)이 “Pain mechanisms: a new theory”(Science 150: 971 - 979)에서 제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자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면, 앞서 의식에 관한 문제에 데넷이 하나의 유비로 제기하였던 ‘스탈린 모델이나 오웰 모델이나’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넷의 문제제기는 감각 정보가 의식이 되기 전에 편집되고 검열되는지(스탈린 모델), 아니면 그 후에 처리되는지(오웰 모델)였고 이를 통해 자각되지 않은 경험을 설명하여 현상적 경험의 본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각 경험에 대한 데넷의 두 모델은 인지심리학 실험의 두 해석으로 구체화되었다. 필자는 이 두 해석을 지지하는 경험적 자료들을 비교하여 그 설명력을 살펴 본 결과로써 스탈린 모델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스탈린 모델이 제공하는 설명의 이점을 맹시와 통증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시각이나 통증 감각질과 같은 현상적 경험의 성립에 인지적 주목이라는 요소가 개입된다고 함으로써, 동일한 자극입력에 대하여 개개인이 다른 통증 느낌을 가지는 감각질의 개별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인지적 주목은-스탈린 모델이 보여주는 그림처럼-감각 정보가 처리될 때 해석적 차원에서 검열하는 역할을 하며, 그 후에야 현상적 경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통증 감각질의 전체 속성을 해명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목의 기제를 들여와서 감각질을 설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설명적 이점은 심적 상태가 두뇌 상태(물리적 상태)가 세세하게 개별화되는 만큼 세밀하게 개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두뇌의 특정한 C-섬유발화와 대응하는 추상적 범주의 ‘통증’을 말하는 대신, 동일한 자극에 대하여 동일한 C-섬유발화를 가지더라도 개개인들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다양한 통증 감각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특정한 역사를 가지는 특정 개체의, 이러저러한 상황과 조건에서의 스멀스멀한 통증’ 같은 것으로 더 세밀하게 통증을 개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통증의 상태들은 주목의 기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통증을 비롯한 감각질은 그러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생물학적 토대를 가지는 것에만 적용되므로 현상적 경험을 가지는 유기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으로

써, 스탈린 모델에 의한 설명은 감각질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 범심론이 되지 않게 하는 부수적 이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 Dennett, D.(1991). *Consciousness Explain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Dretske, F.(1993). Conscious Experience. *Mind*. 102(406), 263-283.
- _____ (1995). *Naturalizing the Mind*. Cambridge, MA:MIT Press.
- _____ (2004). Change Blindness. *Philosophical Studies* 120: 1-18.
- Huettel et al.(2004).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inauer Publishing.
- Levin, D. T., & Simons, D. J.(1997). Failure to detect changes to attended objects in motion picture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4(4), 501-506.
- Levin, D. T., & Simons, D. J.2000. Perceiving stability in a changing world: Combining shots and integrating views in motion pictures and the real world. *Media Psychology*, 2(4), 357-380.
- Levin, D.(2002). Change blindness blindness as visual metacognition. In Noe 2002. *Is the Visual World a Grand Illusion?* Imprint Academic.
- Mack, A. & I. Rock.(1998). *Inattentional Blindness*. Cambridge, MA: MIT Press.
- Melzack, R., Wall, P.(1965). Pain mechanisms: a new theory, *Science* 150: 971-979
- Noe, A. (ed.)(2002). *Is the Visual World A Grand Illusion?* Imprint Academic: Thorverton, UK.
- Pessoa, L. & Ungerleider, L.(2004). Neural Correlates of Change Detection and Change Blindness in a Working Memory,

- Cerebral Cortex*, 14(5): 511-520.
- Rees, G., Russell, C., Frith, C. & Driver, J.(1999). Inattentional blindness versus inattentional amnesia for fixated but ignored words. *Science* 286, 2504-2507.
- Rensink, R. A.(2000). Seeing, sensing, and scrutinizing, *Vision Research*, 40, 1469-1487.
- _____.(2004). Visual sensing without seeing. *Psychological Science*, 15, 27-32.
- Rosenthal,(1986). Two concepts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Studies* 49: 328-359.
- Simons, D. J., & Chabris, C. F.(1999). Gorillas in our midst: Sustained inattentional blindness for dynamic events. *Perception*, 28(9), 1059-1074.
- Simons, D. J., & Levin, D. T.(1998). Failure to detect changes to people during a real-world interaction.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5, 644-649.
- Simons, D, Nevarez. G. & Boot, W.(2005). Visual sensing is seeing: why ‘mindsight’, in hindsight, is blind. *Psychological Science*.
- Styles, E. A. 1997. *The Psychology of Attention*. UK: Psychology Press.
- Tye, M.(2000). *Consciousness, Color and Content*. The MIT Press.
- _____.(2003). Blurry images, double vision, and other oddities: new problems for representationalism? in Smith, Q. & Jolic, A. (ed.) *Consciousness: new philosophical perspectives*. Clarendon Press. 7-32.

ARTICLE ABSTRACTS

Cognitive Attention and Qualia

Hyo-eun Kim

In this paper, I claim that cognitive attention is one of key elements in explaining phenomenal experience. To do this, I begin with Dennett's thought experiment regarding temporal anomaly of consciousness, which offers 'Orwellian' and 'Stalinesque' models of phenomenal experience. He suggests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one over the other. Recent work in cognitive psychology re-illuminates Dennett's question. Dennett's proposed two models correspond to the 'inattentional amnesia' account and the 'inattentional blindness' account of a series of psychological experiments.

I argue that the Stalinesque model is more plausible than the Orwellian. The Stalinesque model supports the view that cognitive attention helps explain the phenomenal quality of consciousness. I review competing empirical data supporting the two accounts and assess their explanatory power. I conclude with some explanatory advantages of the Stalinesque account.

[Key Words] Dennett, Orwell/Stalin model, Change blindness, Inattentional blindness, Representational theory, Attention, Qualia, Pain